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y Architect ?

趙仁淑/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누구나 다 알면서도 꿈 같은 얘기지만 좋은 일과 그 일을 해내기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장소를 갖추고 적당한 시간과 돈을 써야 제대로 건축설계를 해낼 수 있다.

건축계에서 빈번한 움직임중의 하나는 기존 단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일이다.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일'때문이 아닌가 한다. 몫의 배분이 고르게 되면 차분히 앉아 일하기에 바쁠 것인데 편중돼 있고, 불합리하게 일이 형성되고, 역시 정당하지 않게 수행되니, 모두가 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종류를 보면 크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일, 건설업자들이 발주하는 일 그리고 개인,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일들의 형성과정은 다양하다.

기업 내지는 개인들이 하는 일이야 개인 내지는 기업의 친분있는 자가 대개 하게 되지만, 첫번째의 경우 가장 많은 것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자를 결정하게 된다. 설계경기를 하려면 누군가가 기초작업을 해야하고 그 기초작업을 토대로 설계경기에 임해, 역시 많은 부분이 다분히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설계자가 결정된다. 사실 그 프로젝트 자체는 대부분이 조작된 것이기도 하다.

국가돈으로 짓는 이유없는 어떤 건물들은 대체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말인즉 안(案)이 좋으면 당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계획안의 우열이란 근소한 차이이고, 일의 수행의 능력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보다도 앞서 그런 건물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작업 또한 학회, 가협회, 사협회 등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누군가에게 의뢰되나 대부분은 그 일을 만드는 사람, 본인 내지는 측근이 하게 된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일반설계자가 대부분이다.

공부를 많이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나오는 일들이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사실상 설계경기나 학술용역이니 하는 명분있는 행위란 대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일을 만든 사람들의 작업을 합리화,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이진 사실된 것이 아니다.

다 좋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이지, 형성과정이야 다 능력껏 하는 것이니까, 그런 능력 없으면 좋은 일 못 만들고 못 해 보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일을 해 내기에 적합한 사람이나 장소란 건축사업무 내지는 각종 설계활동을 하는 설계사무소라는 조직을 말하게 된다. 좋은 일을 능력껏 따 냈을 때 어떻게 수행하느냐는 그야말로 생각해 볼 문제다.

건축사법에 정한 등록여건을 갖추고 있진 아니건 설계행위를 하는 사무소를 몇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대기업이 직접 운영 내지는 스폰서하는 대형 사무소, 설계사무소로 출발하여 커 온 대형사무소, 중·소 규모의 개인내지는 종합사무소, 각종 인테리어 및 CAD 등등의 전문화 사무소, 대학에 재직중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연구소 등이 있다.

앞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대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나 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사무소가 할 일과 적당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대형 사무소의 경우 프로젝트 하나 수주하면 실제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45~50% 이하로 떨어져야 합리적인 운영이 되므로 소규모 사무소들이 그 곳에 등록(?)을 하고 소위 협력설계를 하게 된다. 물론 다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경기도 협력업체에게 주고, 기본설계도 협력업체 그리고 실시설계도 협력업체가 작업을 한다. 잘만 운영되면 괜찮은 방법이다. 큰 사무소는 경비줄여 좋고 관리만 잘하면 되니까, 동시에 백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다.

또한 소규모 사무소는 그 일들만 중점으로 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해도 금액은 적지만 건축주와 직접 대면할 필요가 없고, 기술료가 나가는 것이 없으며, 일의 수주의 성사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피차간에 좋은 일이라 생각된다.

다만 실제 작업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밝히는 것이 옳다. 지금처럼 한다면 먼 훗날 후손들이 그 작품 누가 설계했나 자료를 찾을 때 실제 작업한 사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계약 대표자가 설계자가 되려면 본인이 적어도 스케치라도 하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있지만 단지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영원히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면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배워온 역사 자체가 이처럼 날조될 것인지 모른다. 기록이란 다분히 힘의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협력설계가 설계 사무소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무소로 가게되면 비용이 올라가므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은 좋은 여건을 찾게 된다. 그 중 산학협동이 한 예다. 즉 학교연구소에 설계를 맡기는 것이다.

産學협동이란 참 좋은 일이다. 어떻게든지 학교와 관련지을 수만 있다면 득이 되면 되었지 손해가 날리 없다.

학교로 볼 때 졸업생들 취직시켜 좋고 교수께서 간혹 설계수업에 빠지기는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를 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업체에서 학교로 연구 용역 의뢰하며 나중에 설계경기에 심사위원이라도 위촉될 가망성이 있는 각 학교 교수님 열 분 정도 평상시에 대접하고 있으면 학교는 연구비 실적 올라가서 좋고 피차간에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도 이렇게 수행되는 일은 일 자체의 질(質)을 한편으로는 높이기도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건축계에는 많은 부분이 악순환 되고 있다.

임금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고 설계비도 적게 받는 실정이다. 설계비가 적으니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고, 기술료는 뒷전이 된다.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다보니 소규모 사무소들은

좋은 사람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정도 일에 눈이 뜬 젊은이들은 여건이 좋은 대형사무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 결혼도 해야하고 처자도 먹여 살려야 하니 의리도 꿈도 다 소용이 없다. 어차피 근린생활시설이나 설계할 바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큰 사무소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설계비가 적으니 시간과 머리를 자꾸 쓰면 비용이 나가므로 어떻게든지 있는 디테일 활용하고 같은 평면 사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이나 성장은 멈추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똑같은 지하철 역사에 똑같은 아파트에 복제품이 난무하게 된다. 설계행위가 창작행위라는 등, 건축이 동결된 음악이라는 등 하는 얘기는 고전에나 나옴직한 얘기다. 과연 우리는 무엇때문에 건축을 하는가?

우선 한 가지 굳이 제안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건축계의 기본급여가 올라가야 한다. 대학원 정도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한 달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일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할 것이고, 학교에서 엉터리로 졸업을 해서 안될 일이다. 그리고 경력이 많아진다고 갑자기 급여가 오를게 아니라 기본급여와 근소한 차이로 성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직장의 이동도 줄어들고 기술력도 향상될 것이다. 기본급여를 제대로 주려면 설계비를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다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